

북원당(北圓堂)

무착과 세친(산스크리트어: 아사가 · 바수반두)

국보

무착과 세친은 4 세기부터 5 세기에 인도 북서부에 살았던 유명한 학승으로 형제 사이였다고 합니다.

무착은 미래의 부처인 미륵에게 현세에 나타나 불교의 가르침을 설파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. 그리고 무착은 미륵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기고 편집하여 동생인 세친에게 주었고, 세친은 그 철학적 사상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. 그렇게 두 형제는 법상종의 기초가 되는 서적을 저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. 그래서 법상종의 승려들은 이 두 사람을 교육과 학문의 시조로 추앙합니다.

이 상들은 1212 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, 유명한 불상제작자인 운케이(1150~1223 년)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운케이는 이 살아있는 듯 생생한 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민족이나 역사적 맥락을 초월한 불교의 실천자로서의 이상을 표현하려 했습니다. 이 두 상은 짝을 이루고 있지만, 표정은 크게 다릅니다. 형인 무착은 늙고 약간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온화하게 중생을 내려다보며 가슴에는 천으로 감싼 작은 꾸러미를 들고 있습니다. 동생인 세친은 중년 남성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먼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. 두 상 모두 육중한 체형을 하고 있어 강한 위엄이 느껴지는 한편, 수정을 눈에 박아 넣어 표정은 놀라울 만큼 생동감이 넘칩니다. 이러한 이유로 이 상들은 운케이의 대표작으로서만이 아니라, 일본 조각사상 최고의 걸작으로도 꼽힙니다.